신인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 8일 만인 10일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 사진제공 | 어도어

뉴진스, 데뷔하자마자 빌보드 진입…“역시 글로벌 괴물 신인!”

〈5인조 신인 걸그룹〉

음원 발매 8일 만에 빌보드 174위
데뷔 앨범 선주문량 44만장 신기록
태국·인니 등 9개국서 아이튠스 1위

신인 걸그룹 뉴진스(New Jeans) 돌풍이 거세다.

지난달 말 무대에 나선 지 열흘밖에 안 된 신인으로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며 미국 빌보드 차트에까지 진입했다. 한국을 비롯한 10대의 다국적 멤버로 팀을 구성한 이들은 특히 기존 걸그룹의 전형적인 데뷔 방식 등에서 과감히 벗어나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지난달 27일 데뷔 앨범 ‘뉴 진스’의 예약판매를 시작한 이들은 4일 만에 선 주문량 44만 장을 돌파했다.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발매 첫 주 판매량) 1위인 르세라핌의 30만 장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타이틀곡 ‘어텐션’을 비롯해 ‘하이프 보이’, ‘쿠키’, ‘허트’ 등 4곡을 앨범에 담은 이들은 8일 만에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 빌보드가 10일(한국시간)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어텐션’은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174위에 올랐다.

‘어텐션’으로는 한국 스포티파이 ‘일간 톱 송’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음반에 담긴 4곡 모두 차트 상위권에 들었다. 태국, 핀란드 등 9개 지역 아이튠스 앨범 차트 1위에도 올랐다.

뉴진스는 한국, 베트남, 호주 출신인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5인으로 구성됐다. 멤버들의 평균 나이는 16.4세다. 이들은 신인들이 관행적으로 펼쳐온 홍보 프로모션 활동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예고 없이 지난달 22일 그룹명과 함께 데뷔곡 ‘어텐션’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 파격을 택하기까지 했다. 쇼케이스를 통해 노래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여느 걸그룹들과도 달랐다.

“매일 찾게 되고, 언제 입어도 질리지 않는 진(Jean)처럼 시대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출사표와 같이 거침없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처음 선보인 걸그룹이다. 과거 SM엔터테인먼트에서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 톱스타급 아이돌 그룹의 활동 콘셉트와 브랜드 마케팅을 맡아 가요계에 잘 알려진 민희진 대표가 데뷔 과정을 총괄했다. 관행과 관례를 뛰어넘은 데뷔 과정 역시 소속사의 치밀한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돼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신인 걸그룹으로서 첫 외부 활동 무대를 해외 명품 브랜드 이벤트로 삼은 것도 그 방증인 셈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www.sportsdonga.com

LG 핵타선 ‘마지막 퍼즐’ ‘출루머신’ 홍창기의 귀환

팀타율·득점·타점·홈런·안타·OPS 등 LG 타선, 대부분의 타격지표서 1위
부상 여파로 감각 떨어졌던 홍창기 9번타순서 연이틀 멀티히트 회복세
출루머신 살아나면 LG엔 천군만마

LG 트윈스는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에서 방망이의 힘을 한껏 과시하고 있다. 9일 기준으로 팀 타율(0.274), 득점(515점), 타점(484점), 홈런(91개), 안타(930개), 장타율(0.413), OPS(장타율+출루율·0.762) 등 타격지표 대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후반기 들어서도 14경기에서 팀 타율 0.294, 19홈런, 장타율 0.474, OPS 0.842 등으로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덕에 최근 리그 2위로 올라서는 등 막강 타선이 팀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 시즌(타율·득점·타점 8위, 안타 9위, 홈런 공동 4위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 시즌 만에 확연히 달라진 화력을 뽐내고 있다.

이처럼 타선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출루머신’ 홍창기(29)가 주목받고 있다. 올 시즌 72경기에서 타율 0.306, 35타점, 출루율 0.387, 장타율 0.392 등으로 고른 활약을 펼쳐왔지만 후반기 페이스는 썩 좋지 않다. 6월 26일 수원 KT 위즈전 도중 옆구리 통증을 느껴 이튿날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그는 내복사근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재활에 전념한 끝에 지난달 27일 1군 무대로 돌아왔다.

장기간의 결장에 따라 경기감각이 다소 떨어져서인지 홍창기는 타석에서 좀처럼 제 페이스를 찾지 못했다. 급기야 LG 코칭스태프는 부담 없이 경기에 나서며 감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의 타순을 9번으로 내려주기도 했다. 테이블세터가 익숙했던 그로서도 낯선 경험이었다.

다행히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차츰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7일 잠실 키움 히어로즈와 3연전에선 2차례 멀티히트 포함해 14타수 5안타 3타점 3득점으로 반등 조짐을 드러냈다. 볼넷은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배트를 휘두르며 떨어졌던 자신감과 타율을 함께 끌어올렸다.

홍창기가 확실하게 회복한다면 박해민과 함께 다시 리그 최강의 테이블세터진을 이룰 수 있다.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득점권에선 특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김현수, 7월 이후 타율 0.353으로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채은성, 19홈런으로 장타력을 뿜어내고 있는 오지환이 뒤를 받치는 만큼 LG로선 더 높은 득점력을 기대할 수 있다. ‘출루머신’이라는 수식어를 지닌 홍창기가 잘 나가는 LG 타선에 날개를 달아줄지 주목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LG 타선은 올 시즌 ‘극강’의 모드를 뽐내고 있다. 팀 타율, 득점, 타점, 홈런, 안타, 장타율 모두 1위다. 부상 여파로 한동안 주춤했던 홍창기까지 가세한다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격이 될 수 있다. 홍창기가 LG 타선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 스포츠동아DB

‘MLB 야구천재’ 오타니 ‘10승·10홈런’ 대기록 달성…베이브루스 이후 104년 만에 새 역사 ▶2면